

#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잠언 8:17-36, 골로새서 2:1-3

최정웅 목사님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건을 살 때 흥정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만 원짜리 물건이 있으면 사고 싶은데 7천 원밖에 없다 하는 식으로 접근하라고 한 것이다. 말을 알아들은 아이가, 장난감 가게에 갔다.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서 얼마냐 물으니까 5천 원이라고 했다. 그래서 아이가, “저 3천 원밖에 없는데요.” “갖고 싶으니?” “꼭 사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3천 원만 내라.”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5천 원짜리를 꺼내들었다. 2천 원을 거슬러달라고 (웃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다. 그런데 지혜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을 지혜롭다고 하기 쉽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 당장 머리 굴려서 잘 되는 것을 선택한 것 같지만 나중에 가보면 더 큰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인도의 전도자 썬다 싱이 티베트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히말라야를 오르고 있었다.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얼어서 쓰러져 있었다. 만져보니까 아직 죽지 않았다. 같이 가던 사람에게 썬다 싱이, “이 사람을 우리가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데리고 가자” 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 사람을 살리려다가 우리가 지 죽는다, 하려고 하면 당신 혼자 하라” 하면서 먼저 가 버렸다. 썬다 싱은 전도자니까 이 사람을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엎고 끌고 하면서 같이 갔다.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또 쓰러져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미 벌써 죽었다. 이 사람이 자기만 살겠다고 먼저 간 사람이었다. 썬다 싱은 그 사람을 엎고 가니까, 힘들어서 땀을 흘리다가 살았는데, 그 사람은 얼어죽은 것이다.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때로는 답이 되기도 하고, 구원이 되기도 한다.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한 것이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진 지혜의 수준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한계가 분명한 지혜가 아니라, 참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잠언이 말씀하는 내용이다. 오늘은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기도제목을 찾기를 바란다.

## 1.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잠언 8장은 특별히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하는 장이다. 지혜가 사거리에서 소리높여 부르고 있다. 이 지혜가 누구를 가리키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이 잠언 8장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내용이다.

(1) 지혜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질문을 두고 잠언 8장을 읽어내려가면 힌트가 나온다.

- ① 잠언 8:35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지혜는 곧 생명이라는 말이다.
- ② 잠언 8:14에 보면, 하반절에,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이 지혜는 곧 능력이라는 말이다.
- ③ 잠언 8:22-26에 보면, “이 지혜는 만세 전부터 있었다.”고 한다.
- ④ 잠언 8:27-30에 보면, 이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을 행했다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 힌트가 좀 되지 않는가? 이 지혜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가? 생명이요, 능력인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요, 예수님이 곧 능력이시지 않나? 만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1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14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2)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2:2-3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한다. 고린도전서 1:24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한다. 오늘부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잠언은 지혜에 대한 책이 맞다. 그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니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잠언은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그렇게 하고 나서 본문을 다시 읽어보라. 지혜가 거리에서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부르지 아니하느냐(잠8:1).”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말이다. 지혜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말이다. 요한계시록 3:20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여 멸망 중에 있는 불신자를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구원받고 나서 그들을 살릴 사명자, 천명, 소명 받은 사명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말이다. 잠언서가 말하고 있는, 특히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은, 특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사료되는 것이다.

## 2. 우리는 이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지혜를 얻어야만 하겠다.

(1) 누구에게 이 지혜가 필요한가? 잠언 8:5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한다.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에게 이 지혜 되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이다. 자기의 창조자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수의 말을 듣고 망해 버린 인류에게 정말 필요한 자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시다. 어리석지 않은 자, 미련하지 않은 자가 과연 있는가? 창세기 3:1-6에 보면, 스스로 지혜로워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인간은 전부 하나님을 떠나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몽땅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로마서 3:23에 말씀한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요한복음 8:44의 말씀대로, 마귀의 자녀가 되어, 거짓말하는 마귀에게 속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버렸다. 로마서 1:22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오히려 어리석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2) 이 지혜를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 8:7-8에 말씀한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굵은 것과 꾀악한 것이 없나니.” 지혜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악한 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땅에는 선이 없다. 사람들이 자기는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쁘다고 비판하지 않나? 검사 아이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문해서 형을 구형하는데,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너는 살려줄 자가 아니다 하면서 사형을 구형하면 판사가 인도하지 않나. 그런데 그런 날에는 검사, 판사들이 집에 못 간다고 한다. 독주를 마신다고 한다.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모양이다. 자기도 죄인인데, “너는 십 년이다, 이십 년이다” 하고 나면 마음이 괴로워서 집에 못 간다는 것이다. 그런 날은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땅에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분은 단 한 분이다. 그분이 후 아담인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다. 그분만이 정죄할 수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다. 돌로 치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사랑을 말하더니 거짓말을 했구나 하려던 것이고, 용서하라 하면 돌로 치라 했던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너희 중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지 다 돌을 내려놓고 사라져 버렸다. 돌무더기만 남았다. 이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다. “너를 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이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당신만이 나를 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이다.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요한복음 8장에 나온 이야기다. 꾀악한, 굵은 세상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다. 말씀을 구부러지게만 들어서 떠나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을 절대 이길 수 없다. 무엇으로도 안 된다. 꾀악한 자, 반역자 사탄을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잠언 8:36은 말한다. 지혜를 놓치게 되면 영혼을 해하게 된다.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와 같다고 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참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필연적인 이유를 잠언서가 밝히고 있는 것이다.

(3) 이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혜가 없는 자는 망하고 속고 지고 멸망

하게 되어 있는데,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가진 자는 어떻게 되는가?

① 잠언 8:35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고 했다.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호와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고 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나게 된다는 말이다. 요한복음 11:25-26은 말씀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20:30-31은 말씀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다. 요한복음 5:24은 분명히 말씀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다.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이다. 로마서 8:1-2은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② 잠언 8:32에는 말씀했다.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생명 되신 그리스도, 능력 되신 그리스도,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참된 복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 선물은 그냥 받는다. 받는 사람은 그냥 받는다. 그러나 더 귀한 선물일수록, 더 귀한 것일수록, 주는 사람은 값을 많이 지불해서 주는 것이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은 무엇을 지불하셨는가?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물을 다 쏟아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선물로 당신을 주신 것이다. 믿음을 주신 것이다. 그제 선물이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냥 받으면 안 된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의 몸, 존귀하신 주님의 몸을 다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며 받아야 한다. 그때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약동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며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된다. 요한삼서 1:2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말씀했다. 에베소서 1:3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고 말씀했다. 이 축복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 그러니 그 은혜 받은 우리들은 뭘 받으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나온 것이다.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기에서 얻은 힘으로 다른 영혼 살리는 거룩한 천명을 이루려고 모인 것이다.

③ 한 가지만 더 찾자. 잠언 8:21에 말씀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경제를 포함해서 모든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축복도 주시겠다는 것이다. 이게 참 지혜다. 많은 사람이 권모술수와 잔꾀를 가지고 돈을 모으려고 한다. 빌립보서 4:19에는 말씀한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에베소서 1:10에 말씀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아무 것도 빼앗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정말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한다.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누리게 되면, 그분을 모시고 살면,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요즘 나온 뉴스를 보니, 아들을 보고 부모님이 뭐라고 했더니, 아들이 화가 나서 둔기로 부모님을 때려 죽였다고 한다. 아들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올라오는 분노를 15초를 못 참아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해결된다고 원수가 조종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해결이 되겠는가? 수십 년 감옥에서 살아야 할 것이고, 그 속에서 겪는 마음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원수는 이렇게 사람을 속여서 지혜롭지 못하게 살게 만든다. 그러나 지혜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그 역사 속에 살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승리하시기 바란다.

나는 이제 마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노회에서,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써 왔다. 이렇게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다르게 하면 살릴 수 있다. 그럴 때 나는 살리는 쪽을 택했다. 교회를 도울 때도 있었다. 그런데 요즘, ‘나는 늘 다른 사람을 돕고 해결해 주면서 살아왔는데, 마

지막에 내 일은 누가 해결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 ‘누구를 만나서 내 일을 의논하지?’ 부모도 믿을 수 없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중에서 내게 많이 은혜를 베푼 분도 있지만, 나는 그런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누군가를 특별히 따로 더 사랑하지도 않았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잘 해 준 분도 못 해준 분도 똑같이 대했다. 목회자로서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내 편이 없다. 내 사람이니까 불려서 이리저리 하라고 지시해 본 적도 없다.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패거리가 생기고 편파가 생기고 먹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게 된다. 목사가 평생 축복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며 사는데, 먹살을 서로 잡고 싸우는 일이 생긴다면, 뭔가 편파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땅에 정말 의지할 사람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만 의지하면 될 것을, 뭘 그렇게 사람을 찾고 의지할 일이 있겠는가.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으면 되고, 살라고 하면 살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인본주의를 그렇게 써서 이 둘을 빼서 저기에 끼는 것을 해야 되겠는가. 한 번 뿐인 인생을 처참하게 마감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두고, 잠언을 읽으면서 그 지혜를 배워야 되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생을 마치고,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말씀을 마치겠다. 참 지혜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처럼 깨끗하고 죄 없는 사람은 돌을 던져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협력하고 위로하고 힘을 모아서, 원수의 계교를 이기고 승리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충만 외에 더 귀한 것이 없다. 참사랑 가족 여러분, 지혜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 달라고 계속 간구하자. 잠언 8:17을 계속 생각해 보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으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주십시오. 한 번 뿐인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란다.

예레미야 29:13에는 말씀한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게 된다. 성령충만을 위해서 한 끼를 굶어 보았는가. 하룻밤을 새워 본 적이 있는가. 하루라도 주님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정말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으로 가게 될 것이다.” ‘되리라’고 했다.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꼭 필요한 역사가 사도행전 1:14이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하게 해 달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 날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 버린 것이다. 정말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는가. 사람을 찾아다니면 부끄러움만 당하게 된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라. 정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분명한 해결책을 주시게 되어 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다. 우리가 체험해야 할 믿음의 체험이다. 기도하다가 응답을 누리지는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참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절대로 버리지 마라. 버릴 것이 따로 있다. 모든 것 다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얻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버리면 다 버린 것이다. 그리스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풀,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한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을 묵상하는 중에, 참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회가 왔지만, 내 욕심 때문에, 원수의 속임수에 속아서, 참 지혜를 버리고,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를 구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참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참 지혜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번 뿐인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